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인의 욕망과 일탈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최 나 리

현대인의 욕망과 일탈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최 나 리

인 준 서

최나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Conversation needed!’라는 주제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진행한 작업들 중 2009년 3월에 있었던 개인전에 전시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을 설명하고자 했다.

본인이 ‘Conversation needed!’라는 주제로 제작한 작품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일상에서 경험한 미각체험과 시각적 이미지가 결합되어 현대인의 다양한 모습들을 상징화시킨 것이다. 마요네즈와 토마토케첩튜브에서 연상된 이미지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징적인 코드로 그림 속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스의 모든 대립되는 면이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본인의 생각을 표현해준다. 그들은 인간의 내면적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현대인의 일상과 욕망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성적욕구, 신분 상승, 물질, 식욕과 탐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들은 화면 안에서 다양한 형과 색의 표현 양식에 미의식이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모습으로 본인이 갖는 사회적 불만, 성적 호기심, 인간 내면의 심리를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 가족과 사회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관계망을 살펴보는 것임과 동시에 인간의 감성을 다루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작품의 주제를 대하는 태도는 로맨틱하지 않으며 오히려 솔직한 모습으로 사회와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시각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현대의 일상을 유영하는 상징적 코드로서의 캐릭터에 본인을 이입시켜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다.

현대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모습과 그 사회가 어떻게 시각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으로 작업을 진행한 본인은 어떤 이유로 작품이 설정되었고, 시각화 되었는지 작품에서의 미론적 해석과 조형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현대인의 모습을 통한 탐구의 과정과 키스 해링을 비롯한 여러 작가의 작품과 본인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본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와 표현 방식에 대해 다양한 작품세계를 펼쳐나가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현대사회와 인간	3
1) 현대인의 욕망과 일탈	3
2) ‘매슬로의 욕구단계설(hierarchy of needs)’을 통해 본 현대인의 특징	4
3) 현대미술에 나타난 욕망과 욕구.....	9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8
1) 형태	18
2) 색(color)	21
3) 선.....	24
3. 작품의 분석.....	27
III. 결론	49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Camouflage Acrylic, Oil on canvas 92×117cm 2008
- [작품2] ssh~! Acrylic, Oil on canvas 130.3×324cm 2008
- [작품3] You, who is too heavy for me
Acrylic, Oil on canvas 145.5×112cm 2008
- [작품4] Slide of greed Acrylic, Oil on canvas 145.5×112cm 2008
- [작품5] Art of fighting Acrylic, Oil on canvas 112×145.5cm 2008
- [작품6] Dance dance Acrylic, Oil on canvas 162×260.6cm 2008
- [작품7] “Conversation needed!”
Acrylic, Oil on canvas 72.7×91cm 2008
- [작품8] Exit to happiness Acrylic, Oil on canvas 72.7×91cm 2008
- [작품9] Porter Acrylic, Oil on canvas 91×72.7cm 2008
- [작품10] Rainbow heroine Acrylic, Oil on canvas 80.3×130.3cm 2008
- [작품11] We are the one Acrylic, Oil on canvas 100×100cm 2008
- [작품12] Sweet & Sour whisper
Acrylic, Oil on canvas 162×260.6cm 2008
- [작품13] On the contrary, is contrary
Acrylic, Oil on canvas 91×145.4cm 2008
- [작품14] Temptation Acrylic, Oil on canvas 72.7×60.6cm 2008

도 판 목 차

[도판1] 슈팅 페인팅(shooting painting), 캔버스위에 오브제, 물감과 총,
194×130cm, 1961

[도판2] Portrait of my Lovers, 페인트 풀과 오브제 108.5×94cm, 1961

[도판3] 물구나무선 검은 나나, 천과 양털 페인트와 철망
150×105×108cm, 1965

[도판4] 그녀(Hon), 혼합 매체, 2800×900×600cm, 1966

[도판5] 가족의 초상, 캔버스에 유화, 135×160cm, 1983

[도판6] 애인들, 캔버스에 유화, 167×128cm, 1984

[도판7] 수녀원장, 캔버스에 유화, 195×130cm, 1988

[도판8] 모나리자, 캔버스에 유화, 183×166cm, 1977

[도판9] 무제Untitled, 파운드 캔버스에 마커 잉크와 페인트,
244×210cm,

1982

[도판10] 무제Untitled, 비닐 방수포에 비닐 잉크, 183×183cm, 1982

[도판11] 무제Untitled, 종이에 초크, 203×107cm, 1984

[도판12] 위에서 아래로

포스터 마분지에 먹물, 122×233cm, 1980, 개인소장

포스터 마분지에 먹물, 122×230cm, 1980, 개인소장

포스터 마분지에 먹물, 122×228cm, 1980, 개인소장

[도판13] 무제Untitled, 캔버스에 아크릴, 122×122cm, 1985

[도판14] 무제Untitled, 캔버스에 아크릴, 239×239cm, 1984

I. 서 론

우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수많은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다양한 관계는 성립되고, 그 안에서 상호소통 하고자 노력한다. 현대인들의 풍경은 동시대 예술 속에서 예술가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시각언어들로 표현되어진다.

오늘날 예술은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이후의 제도와 개념, 이념과 방법들로 뒤섞인 시대이기도 하다. 지난날 과도한 작가 의식의 바탕이 되어왔던 사회, 역사, 현실들이 동 시대 작가들의 일상과 무의식으로 들어왔다. 특히 예술은 이미 현대인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예술을 고급한 것으로 여기며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미적인 것을 일상적인 경험과 분리시켜 생각하는 행위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미술이란, 작가는 매우 개인적인 환경으로부터 작품의 모티프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모티프들은 작가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회화의 주제로 일상경험의 배후에 있는 작가의 세계관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주제 변화나 붓의 터치, 색감의 변화로도 작가의 시기별 상황들을 유추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자기표현의 예술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성의 동의를 얻게 되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삼 쌍둥이(Siamese twins)와 같은 유전자 조직의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YBA(Young British Artist)의 체프먼 형제(Jake & Dinos Chapman)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끊임없이 연구하며 알약들에 의존하여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픈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데미안허스트(Dimien Hirst)의 작품들도 동시대의 감성과 작품의 내용적 공감을 통해 사회적 문제점들을 표현해 내고 있

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현대인의 삶속에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작품들도 작가 본인이 생활하는 현실공간 속에서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작가의 경험으로 비롯되었다.

본인은 현대인의 관찰을 통해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며, 인간의 욕망 즉 성적욕구, 신분 상승, 물질, 식욕과 탐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풍자하듯 그려내고자 했다. 현대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모습과 그 사회가 어떻게 시각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으로 작업을 진행한 본인은 어떤 이유로 작품이 설정되었고, 시각화 되었는지 의미론적 해석과 작품의 조형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고 1장에서는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서술하고, 본인이 작품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 드러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메슬로우의 욕구이론’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 2장에서는 키스 해링의 작품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 속에 구현된 인간의 욕망의 모습들과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조형적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작품과 본인의 작품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했다. 본고 3장에서는 본인 작품을 이루고 있는 형과 색, 그리고 선의 쓰임에 대해 작품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와 인간, 현대인의 풍경, 이것은 가장 상투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인간을 다루는 문제이다. 현대미술은 단순히 인간의 형상을 다루는 문제를 벗어나서 인간의 집단,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대인을 통한 탐구의 과정과 그 의의로서 본인 작품에 다양한 표현소재와 방법을 넓혀 가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II. 본 론

1. 현대사회와 인간

1) 현대인의 욕망과 일탈

20세기 아트계의 슈퍼스타 앤디워홀은 대중미술과 순수미술 간의 경계를 한순간에 와해시키고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디자인, 광고 등 시각 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순식간에 현대미술의 총아로 떠올랐다. 그의 예술세계는 사후 20년이 지나서도 현대사회의 흐름을 꿰뚫어보았는데, 워홀의 미학처럼 현대인의 욕망과 욕구는 넘쳐나고 있다. 현대 미술에서 예술가들이 생각하고 표출하는 것이 이제는 대중들에게는 회화 이외에 패션, 영화, 광고 등에 쓰이기도 하며, 작가의 상상력을 동반한 욕망과 일탈이 주제가 되는 많은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인은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정의되어 질 수 있다. 현대사회라는 특정한 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존재하며, 그 시대의 사고나 정서를 반영하기도 한다. 일정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그리고 조직의 합리성과 인간의 행복이 서로 일치되고 조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원리와 규칙에 순응, 자본주의 체계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지위 앞에 많은 것을 갈등하며 대립을 갖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풍경을 접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욕망과 일탈을 꿈꾸며 때로는 가치 있고, 때로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려는 자아 존재의식에 대한 욕망을 꿈꾸는 한편, 현실에서는 일상의 모든 것을 벗

어나고자 하는 ‘일탈(逸脫)’이라는 잠재적인 욕구를 지니게 한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현대 사회구조 속에서 느끼는 허무와 끝없는 욕망 사이에서 삶의 본능과 본능의 억제로 나타나는 섬세한 감정에 초점을 둔 현대인들의 내면 정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대인의 갈등과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의 개념을 조형화하였다.

이와 같이 본론 1장을 통해 현대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다양한 욕망과 일탈을 꿈꾸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문제를 예술이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더불어 키스 해링의 작품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 속에 구현된 인간의 탐욕과 성욕, 대중의 동의를 얻고자 한 다양한 작품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2) ‘매슬로의 욕구단계설(hierarchy of needs)’을 통해 본 현대인의 특징¹⁾

본인이 작품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인간 관계망 속에서의 인간의 욕망 즉 성적욕구, 신분 상승, 물질, 식욕과 탐욕의 추구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을 자각(自覺)하기도 하며, 더 많은 욕망과 일상으로부터 일탈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들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매슬로의 욕구5단계설(hierarchy of needs)’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매슬로(A. Maslow)의 5단계 욕구

1) 황농문 「물입-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랜덤하우스, 2007

- 1단계 : 생리적 욕구-본능적인 수준에서의 욕구, 식욕이나 수면욕 등.
- 2단계 : 안전의 욕구-본능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욕구가 생긴다.
- 3단계 : 애정과 소속의 욕구- 이 단계부터는 '사회적 욕구'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가 강해짐
- 4단계 : 승인의 욕구-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존에 대한 욕구' 라고도 함
- 5단계 : 자기실현의 욕구: 이상 실현 등에 대한 욕구. '성장 요구'라고도 함.

욕구이론을 통해 본 현대인의 특징은 5단계 욕구로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이 같은 인간의 욕망과 일탈적 표현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매슬로(A. Maslow)는 인간의 욕구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체적 욕구라고 하였다. 공기. 물. 음식, 주거, 수면, 성 등의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성장 발달과 건강에 지장을 가져온다. 1단계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대두된다. 불안이나 공포 또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건전한 성격 형성이 가능하고 인간다운 삶이 영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두되는 것은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이다.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친구나 주위 어른들의 이해와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단계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인간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단계에 접어든다. 자기에 대해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즉 부모, 선생,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인간은 누구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4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최상의 단계인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자율적으로 자기 나름의 독특한 개성과 잠재 능력을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즉, 진리, 자유, 정의, 착함, 아름다움의 추구와 같은 자기가 꿈꾸어 온 이상을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바뀐다.

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생리적 욕구는 욕구체계의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생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욕구이기도 하다. 공기, 음식, 배설, 성, 휴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생리적 욕구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 그들은 비교적 상호 독립적이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육체의 특정한 부위와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배고픔이 위와 연관되는 것과 같다.) 셋째, 풍요한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욕구는 동기부여적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다. 넷째, 이러한 생리적 욕구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생활체험에서 확인되듯이 생리적 욕구의 접근은 다른 욕구의 경우보다 더 쉽게 찾아들며, 그 충족 또한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② 안전욕구(safety needs)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안전욕구가 고개를 들게 된다. 이러한 욕구는 육체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경제적 안정,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환경의 선호 등으로 나타난다.

③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가 적당히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가 인간행동

의 주요한 동기자극요인이 된다. 개개인은 동료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며, 그 곳에서 동료들과 어울려 우의와 애정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조직의 관리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한편 이 욕구를 조직 내지 조직목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들 자연발생적 집단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조직성원의 관계를 통제하고 유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흔히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조직성원의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④ 자기존중의 욕구(estem needs)

생리적 욕구와 안전 및 사회적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존경욕구가 지배적 욕구로 등장한다. 이 욕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본인이 스스로가 자신을 중요하다고 느껴야 할 뿐더러, 이 감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양자가 결합될 때에만 비로소 바른 의미의 자존감이나 자기 확신이 움트게 되는 것이다. 동료보다 우월하려는 경쟁적인 욕망은 인간의 일반적 특징이다. 따라서 조직의 관리자가 이 존경욕구를 적절히 활용하면 고도의 조직실적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성원이 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좌절을 느낄 경우에는 오히려 열등과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⑤ 자기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인간욕구체계의 정상에는 자기실현욕구가 존재한다. 매슬로 (A. Maslow)는 자기실현욕구를 가리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이 되어 보려는 욕망'이라고 정의한다. 이 욕구체계에 이르면 개개인은 그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노력한다. 이 욕구는 자기발전

이나 광의의 창조성과 깊이 연관된다. 이러한 욕구의 구체적인 형태는 인간의 퍼스텔리티가 그러하듯이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는 창조적인 형태의 실현을 뜻하며, 따라서 성취감과 자아만족의 결과를 안겨준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hierarchy of needs) 외에 맥클랜드(David McClelland)가 주장하는 인간의 욕구이론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이다. 성취욕구란 어려운 일을 성취하려는 것, 물질·인간·사상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관리하려는 것, 그러한 일을 신속히 그리고 독자적으로 해내려는 것, 스스로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 등에 관한 욕구라고 심리학자들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권력욕구(need for power)이다. 높은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되어 남을 통제하는 위치에서는 것을 선호하며 타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크다. 세 번째로 친화욕구(need for affiliation)이다. 친화욕구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타인들에게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타인을 도우며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이렇듯 인간은 단계별로 여러 욕구들을 갈망하고 또 성취해나가며 살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복잡한 인간관계속에서 발현되는 욕구들은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현대사회는 윤리 도덕의 상실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색정적 자기도취 사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물질과 금전에 대한 애착으로 인간을 상품화하고 자신의 인간성까지 변질시켜 가고 있다. 또 이러한 요인

들로 인하여 이기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비인간화 경향을 비롯하여 인간의 소외, 윤리도덕의 상실, 지성의 도구화 현상들은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감염된 인간들은 내면의 정신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기도 한다. 또 인간 상호간의 인간관계도 도의적 협동이나 애정적, 인격적, 영속적 상호 유대관계가 아니라, 일시적, 형식적, 물질적, 이익추구 관계로 전락되고 말았다.²⁾

물질문명의 팽창으로 인하여 사회, 심리적 변화에 노출된 인간은 소외라는 현상을 겪게 되었고, 그것은 사회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오늘날의 사회는 성취를 요구하여 구성원과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서로를 위기의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소외현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위화감과 괴리감을 느끼도록 했으며, 인간을 비인격화 시켰다. 경쟁, 물질이 앞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본인이 느끼고 바라보는 시각들을 작품에 표현하며 치열한 삶의 단편적 모습들을 해학적으로 보여줌으로서 관람자의 해석 여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3) 현대미술에 나타난 욕망과 욕구

현대미술에 있어서 작가들의 표현방법은 자연과 인간, 인간의 욕망추구 행위 속에서 끊임없이 자아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본인의 작품역시 현대인의 욕망과 욕구를 여성과 남성의 캐릭터로 변모시켜 다양한 소재를 찾아내고 있는데, 이 같은 주제들은 더욱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현대미술 안에서 인간의 욕망과 일탈 표현의 소재에 대해 다루는 작품들 중 페미니즘

2) 임춘식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서울:한남대학교 출판부, 1990

에 관련된 작품이 두각 되기도 하였는데, 여성작가로서는 대표적으로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Phalle)이 있다. 그녀는 뚱뚱하면서도 밍지 않고, 활기 넘치는 프랑스의 누보레알리즘³⁾의 조각가였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의 한사람이자 창의적인 작가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당시까지도 유럽에 만연했던 아카데미 전통에 구속되기를 거부하면서 창조, 사고, 사랑이나 삶에 대한 열정과 같은 주제에 대해 창작의 자유를 향유하려는 자신의 직관 외에는 어떠한 동기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보기 드문 존재였다. 이미 페미니즘 예술(Feminism Art)이 유럽에 풍미하기 오래전부터 여성 작가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제작을 독자적인 여성적 표현방법으로 정의하려고 했으며, 남성 중심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편향된 이미지도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새로운 여성상의 이미지는 바로 과거 전통과의 단절이나 파괴로부터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며, 그로 인해 그녀만의 예술세계가 탄생하게 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다.⁴⁾ 1961년에 ‘슈팅 페인팅(shooting painting)’으로 누보레알리즘 작가로서 이름을 얻었다.

[도판1]은 전시장에서 관객에게 릴리프가 문혀진 캔버스에 물감을 싯덩어리를 총알 삼아 권총을 쏘게 함으로써 무작위적인 추상화를 연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판2]는 ‘내사랑의 초상화(Portrait of my Lovers)’라는 제목으로 표창을 던질 표적으로 남성용 셔츠에 타이를 매어 나무에 붙이고, 그곳에 표창을 던짐으로써 남성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를 표현했다. 그녀의 공격적인 작품은 어릴 적 환경의 결과물이었으

3)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2002, p.72

누보레알리즘은 공업제품의 단편이나 일상적인 오브제를 거의 그대로 전시함으로써 ‘현실의 직접적인 제시’라는 새롭고 적극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미술이다. ‘기계화 되고 공업화 되면 광고로 넘치는 우리들 현대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차용’하여 제시하는 것은 누보레알리즘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방법이다.

4) 이상은 「니키 드 생팔의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요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36

며 ‘죽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그대로 작품에 표현했다. 이 같은 욕망의 표출행위를 통해 작가는 일종의 대리만족이나 일탈행위에서 오는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후 작가는 새로운 주제를 다룬다. [도판3]은 물구나무를 선 검은 비너스(Black Venus)의 ‘나나’는 작가의 대표적인 연작 중 하나로써, 화려한 색채로 장식한 뚱뚱한 흑인 여성을 마치 미의 화신인 비너스처럼 묘사한다. 터질듯 부풀어 오른 오색의 조각상, 이를 통해 그녀는 당시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고정관념을 비웃고, 성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남성의 시각에서 단지 섹스심벌로의 여성에서 벗어나 ‘사람으로서의 여성’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도판4]는 1966년 장 텅겔리, 펠 울로프 울트베드(Per Olof Ultvedt)와 함께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에서 제작한 ‘그녀(Hon)’라는 작품으로 ‘나나’의 하체를 마치 거대한 건축물처럼 제작해 놓은 작품이었는데, 작품을 감상하려면 관객들은 ‘나나’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나나’의 자궁을 문으로 설정해 놓음은 여성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서 여성을 찬양하려 함이다. 억압된 분노를 내뿜으며 서서히 스스로를 온전히 할 수 있었던 치유의 과정이었던 초기 작품들로부터 시작하여 ‘나나’의 탄생과 꿈의 동산인 타로공원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개인적 경험과 고통이 ‘나나’를 제작하게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삶속에서 경험한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욕구들을 폭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작업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어 위대한 미술가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콜롬비아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보테로는 부풀려진 소재를 이용하여 특유의 유머감과 남미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옛 거장들의 작품을 이용한 독특한 패러디 작품들과 정치적 권위주의와 현대 사회상을

풍자하는 작품들은 본인의 작품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도판5]와 [도판6]에서 보여지 듯 보테로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뚱뚱하고 통통한 인간들의 표정에서 욕망과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주로 풍만한 형태의 인체로 잘 알려진 작가는 인물, 풍경, 정물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독특한 조형감각을 보여주었다. 과장된 비례와 풍선 같은 이미지들은 현대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뿐만 아니라, 역사, 거장들의 예술 작품 등에서 영감을 받아 풍자적이고, 우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인물들의 위치는 종종 삼각형의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인물의 크기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기능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으로는 읽을 수 없는 감정 상태를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황으로 유추해 보아야 하는 점이 본인의 작품과 닮아있다.

모든 진정한 그림이 그런 것처럼 보테로의 그림은 엄격하게 말해서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다. 그의 그림은 육체들을 제시하거나 현재화시킬 뿐이다. 즉 대상을 관람객의 정면에 있게 하고 대상들을 개성적으로 팽창시키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서다. 팽창은 모든 사물에 적용되고, 그림의 세계 안에서 신체들은 전혀 변형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볼륨의 비율로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둥근 형태는 얼굴, 몸통, 사지에 적용되기도 한다. 형태를 과장하는 것은 또한 형태를 단순화 시키고,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⁵⁾ 보테로의 그림들 중 대부분은 지배층을 뚱뚱한 모습으로 희화화함으로서 그들의 위선과 수탈에 대한 풍자를 드러낸다. [도판7]의 수녀님의 손에 들려진 담배와 [도판8]과 같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패러디 하거나 사회상을 비틀어 풍자한 그림조차도 그 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유머스러움이 엿보인다.

그의 조각 작품 역시 회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풍만한 입체감을 지니고

5) Gerard Durozoi, 이정실 역 「Botero」 HAZAN, 1994 p.14

있는데 넓은 광장에 설치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설치되어있다. 보테로는 특히 양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독특한 시각으로 중요한 요소들과 특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보테로의 작품 중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인체의 모습과 눈빛, 속마음을 감춘 무표정한 표정들은 그의 전형적인 인물이자 욕망의 풍경이었는데, 보테로의 그러한 회화작품들 속에서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 보테로의 단순화된 인체의 모습과 같이 본인 작품에서도 마요와 마토는 주제를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사용되어 진다. 그러나 그가 인물들을 매우 세심하게 정지된 포즈로 그려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한 것에 반해 ‘마요와 마토’는 머리카락의 구불거리는 형태와 활달한 움직임의 표현을 선으로 강조 하고 있다.

현대인의 풍경을 캐릭터의 모습으로 풍자하고 있지만 그 형상들이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과 고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테로가 좀 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과 표정들을 취해 군국주의자들이나 권력에 대한 비판과 부르주아 계급을 풍자하여 표현하였다면, 본인은 현대인이 늘 상 마주할 수 있는 풍경 속에서 여러 가지 대상들을 연출하여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 즉 성적욕구, 신분 상승, 물질, 식욕과 탐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거장 展>의 전시에서 잠시 소개된 보테로의 작품은 깔끔하고 세밀하면서도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모더니즘의 비평가들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를 신행상주의의 대표작가로 자리 매김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친 키스 해링의 작품에는 작가의 내면과 자유분방한 자의식이 거침없이 드러난다. 또한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보수주의 권력과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위선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을 담고 있다. 자신의 시각적 언어를 어떻게 구사해야 할 지, 기호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곧 의미를 함축한 상징적 도상들이 그의 그림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도상은 후에 해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이 된다. 그의 작품은 사회적 의식이 담겨있었고 성적, 정치적 주제들을 다뤘지만 장난기도 다분했다. 겉으로는 웃음을 주는 작품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이었다. 그리고 무의식과 우연성은 해링의 작품이 구체적 형상과 내러티브(narrative)를 얻게 된 후에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⁶⁾

그의 작품은 카툰의 약화된 양식과 표현으로 집약되어진 이미지를 따르고 있다. 카툰 형식의 이미지는 대중의 정서와 일치하고 공유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대중의 눈에 띄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또한 동성애자이기도 한 그는 자신의 삶과 작품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해링은 자신의 개성과 예술을 단일한 실재로 통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다. 해링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선이다. [도판9]와[도판10]에서의 선은 대상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형식적으로 축약된 것으로 화면의 한정된 공간 안에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선은 항상 연속적이며, 우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결국에는 형상을 이루는 상징이 된다. 무엇보다도 관람자는 작가가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짧은 순간의 응시만으로 충분히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해링의 작품이 가지는 특별한 매력은 이런 강렬한 그래픽 양식을 거대한 상상의 세계와 결합한 작가의 능력이

6) 김현화 「20세기 미술사-추상 미술의 창조와 발전」 한길아트, 1998, p200

다. 해링은 주변에서 본 것들을 모사하고 통합했으며, 당대의 민감한 쟁점에 대한 확고한 직관으로 미국 사회를 관찰했다. 일상에서 영감을 얻어 그것을 가공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내용적 측면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표현했다. 이런 이야기는 그 중심에 사랑과 행복, 쾌락과 성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폭력과 독설, 억압도 담고 있다. 키스 해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술의 힘과 능력을 항상 믿었으며, 예술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를 예술과 뉴욕의 거리를 이어주는 중개자라고 여겼다. 해링이 작품의 모티브를 매우 개인적인 환경에서 취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모티프들은 작가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회화 주제로 발전했다.⁷⁾

해링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만화 양식적 요소는 선, 만화적 도상과 약호의 사용, 칸 구조를 이용한 내러티브의 전개방식과 함께 만화적 발상이나 표현과 같은 상상력까지 포함한다.

[도판11]과 [도판12]에서 볼 수 있듯이 UFO와 관련된 주제, 해링의 개, 변형된 윤곽선 인물 등 간단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모티프 연작들을 발전시켰다. 키스 해링은 새로운 것에서조차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호들의 축적을 그리거나, 그것의 조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해링은 몇 개의 선만을 사용해 돈에 대한 꿈을 표현 할 수 있었다. 흥분한 인물들로 재현된 초기의 즐거움은 탐욕의 기괴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으며, 다음 작품에서는 그 결말이 결코 행복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다. 처음의 흥분은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었다. 1985년에 제작한 드로잉에서는 비교적 많은 내용을 다루었다.⁸⁾

핵심적으로 남겨진 도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으로 공감을 끌어

7) 알렉산드라 콜로사, 김울 역 「Keith Haring」, 마로니에북스/Taschen, 2006, p.p.7-8.

8) 알렉산드라 콜로사, 김울 역 「Keith Haring」, 마로니에북스/Taschen, 2006, p.27.

낼 수 있다. 소통이 중요한 만화에서 캐릭터의 창조는 작가가 사회적인 공감을 끌어 낼 수 있는 전형적 타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의도적인 단색 배경의 사용, 연속성을 지닌 빠르고 유연한 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 등은 즉각적인 효과와 함께 작품의 고유한 특성이 된다. 이런 이유들로 해링 작품의 형상들은 하나의 도상이 되었다. 처음에 키스 해링의 이름은 두꺼운 검은색 윤곽선과 빛을 발하는 색면으로 이루어진 그래픽 양식을 연상시켰으며, 그것은 지금도 여전하다.⁹⁾

[도판13]과 [도판14]는 성을 주제로 강조한 드로잉으로서 해링의 예술과 삶이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준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성과 관련된 주제는 거의 대부분 위협적이고 폭력적이며 강박관념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렇게 폭력적인 장면은 자주 정반대의 것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밝히고 그것의 정당함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해링의 이런 재현이 갖는 구조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성인 ‘젠더’가 강요하는 ‘이성애’에 대해 동성을 향한 자신의 성적 욕망으로 재현하면서 그것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이렇듯 그의 작업의 모티프들은 작가의 삶속에 있었으며 그가 작업을 대하는 태도역시 표현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진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사랑과 행복, 쾌락과 성, 폭력과 독설에 대해 다룬 작품들 속에 작가의 삶이 온전히 녹아있는 것이다. 본인이 앞서 예술과 작가의 삶이 분리될 수 없음을 언급했듯, 키스 해링은 그의 전작을 통해 그의 인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스타일은 본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선과 색, 형태의 단순함만으로도 강렬한 주제를 전달하고자 했던

9) 위의 책, p.35.

10) 위의 책, p.57.

본인의 작업방식은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단순하지만 그 형태가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대중과 소통되어지는 부분에서 본인의 작품은 해링의 작품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현대미술에 나타난 욕망과 욕구에 대한 표현들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며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안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대미술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욕구, 표현, 의도, 인식 등을 표면화시켜, 현대사회의 억압에서 해방을 통한 치유에 도달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2장에서는 본인이 작품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지는 형과 색, 그리고 선이라는 작품의 조형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 형태

흔히 문학과 연극 그리고 영화에서는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서 캐릭터 중심인가 아니면 플롯 중심인가에 따라 작품의 성격이 결정된다. 여기서 캐릭터 중심은 주로 작가주의 성향이 강한 작품으로 나타나고, 상상력에 바탕을 둔 서사가 주요 동력이 된다. 캐릭터는 플롯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성향이 강하다. 말하자면, 캐릭터는 동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재현하고 대변한다. 당대적인 문제의식과 시대정신을 상징하고 암시한다. 그리고 감각적 현실이 간과하고 있는 행간 읽기를, 억압적 현실이 은폐하고 있는 이면 읽기를 요구한다. 이 독서 과정에서는 심지어 무의식의 읽기마저 요구된다. 이처럼 하나의 캐릭터에는 당대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학적인 여러 이질적인 맥락들이 교차한다. 미술에서의 캐릭터는 특히 모더니즘 이후 서사논의와 욕망이론으로부터 그 당위성을 얻고 있다. 캐릭터는 현대미술에 나타난 여타의 물화된 인격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¹¹⁾ 캐릭터는 또한 주목, 이해, 기억 등 인지적 효과와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효과 그리고 캐릭터의 개성을 통해 작가의 상상력을 간접 체험하는 이미지 효과 등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캐릭터가 갖는 특징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본인 작품 속 캐릭터에 이입시켜 화면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본인 작품의 두 캐릭터는 각각 남자와 여자의 상징화된 모습으로

11) 고충환 「캐릭터를 통해본 동시대 미술」 김달진 미술 연구소, 2006

등장하는데, 그 형상은 마요네즈와 토마토케첩에서 연상된 이미지이다. 일상에서 경험한 미각체험과 시각적 이미지가 결합되어 만들어져 그림 속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통합을 이루는 실체로 복합적인 관계망 속에 놓여있다.¹²⁾ 본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놓은 까닭은 ‘성[性]’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남자와 여자가 항상 이분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대립된 존재로서 존재하며,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 안에서 서로 섞이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인은 한국의 가부장적 제도권 아래에서 자랐다. 그러한 성의 차이 때문에 작품 속에서 여성의 욕망이 남성의 욕망보다 더 크게 표현되어 지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관객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모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행동양식은 유교사상의 역사적, 문화적 규범들을 깨닫게 하며 개인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심리적으로도 차이를 만들어 냈다. 본인이 두 개의 소스(마요네즈와 토마토케첩)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낸 것도 이 둘의 색과 맛, 그리고 튜브에서 짜여져 나오는 각지고 둥근 모양의 모든 대립성 때문이었다.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주변 혹은 사회 환경은 매우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이다. 특히 작가의 경우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와 감성을 드러내는 창작행위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예술은 작가 자신이 독창적인 세계관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

12) 김옥렬 「Mato & Mayo - 마토와 마요가 만나는‘사이’ 혹은 ‘관계’」 개인전 비평, 2009

는 존재로서 자기 체험을 표출하는 행위이다. 본인은 서울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 곳 도시인들의 일상을 바라보며 자라왔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구조를 부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그 대립성이 사라지기를 희망하며 작업에 임했다. 그 희망은 작품 속에서 머리카락들이 서로 엮여져 있거나 신체의 어느 부위가 서로 맞닿아있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생존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소통의 장을 통해 성장하고 또 변화해 간다. 이처럼 우리의 사회화 과정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전제로 자기조절 능력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을 것이다. 본인의 그림에서 보여 지는 인간의 관계, 자기 조절능력, 삶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은 그 어떤 가식적이거나 피상적인 외피에서 벗어나 온전히 맨몸으로 만나는 관계설정에 있다.

현대는 오랜 세월동안 문명의 발전을 거치며 이룬 것이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의 첨단기술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하기위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질수록 순수하고 원초적인 감각은 점점 상실되어 간다. 어쩌면 첨단 기술이 발달한 지금,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온갖 지식정보로 무장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내 몸의 감각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바쁜 도시생활 속에서 인간의 순수한 감각과의 대면은 존재감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그림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현대인의 삶을 둘러싼 무거운 옷을 벗고 순수한 감각과의 대면을 전제한다. 그렇기에 작품에선 인간의 속성과 만나듯, 인간의 원초적인 감각과 통하는 자연의 속성과도 만난다. 본인의 그림에서 만나는 몸 혹은 자연은 생명과 사랑이라는 관계를 탐색하는 작가적 감각이 녹아있는 일상의 흔적이고, 너와 나 사이에서 발

생하는 관계이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소통의 자리다. ‘마요와 마토’라는 캐릭터에 투영된 본인의 현대인은 몸과 몸의 관계, 몸과 몸 사이 혹은 몸의 일부에서 확산되거나 분출되는 머리카락과 몸에서 분비되는 액체를 통해 생성과 소멸의 관계로 구체화 되고 있다. 이 같은 인간의 ‘사이’ 혹은 ‘관계’를 형상화하는 색과 형의 울림은 원초적 생명감과 감각적인 조형성을 통해 본인만의 회화적 구현을 이루어가는 요소로 작용한다.¹³⁾

2) 색(color)

색(color)이라는 말은 현대 프랑스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대와 중세 프랑스어에서는 사정이 달라서 색이라는 말은 외관, 허식, 변장, 책략, 기만(어원적으로 라틴어color는 ‘감추다’를 의미하는 동사 celare의 계열에 속한다)에 자주 결부되는 말이다. 오늘날 색(color)이라는 말은 모든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어 다양한 사물을 지시하며 ‘모든 것 에 관련되어 있다’.¹⁴⁾

본인 작품에서의 색은 남자와 여자 캐릭터를 대립적으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화합의 여지를 담고 있다. 본인 작품에서 마요네즈 통에서 짜여진 형상을 닮아있는 캐릭터는 파랑계열을 사용하여 남자임을 알게 하고, 토마토케첩 통에서 짜여진 형상의 캐릭터는 빨강계열을 사용하여 여자임을 알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색에서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연상이 전통과 결부되면 하나의 관습이 되고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띠게 된다. 색의 상징에는 정서적 반응과 사회적 규범이 있다.¹⁵⁾ 남자아이는

13) 위의 글

14) 미셸 파스투로 「색의비밀」 미술과 문화, 2003, p62

자랄 때부터 부모로부터 파란색계열의 옷이나 장난감 등을 권유받고, 반대로 여자아이는 빨간색계열이나 핑크색의 옷과 인형을 권유받는다. 이는 사회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며 파란색은 남자다운 색, 빨간색은 여자다운 색으로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져있었다. 우리는 남자는 씩씩하고 활동적 이여야 하지만 여자는 조신하고 차분해야 한다는 사회관습에도 곧 적응하게 되었다.

냉정과 이성을 상징하는 파랑은 본인작품에서도 남자의 몸에 칠해져 관람자들은 쉽게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 반대로 빨강(분홍)은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상징하여 본인작품에서 여자캐릭터를 알아보게 해준다. 남자와 여자를 색깔로 구분하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본인은 색으로 캐릭터의 성별을 알아보는 관람자의 행위에서 남자는 이래야하고 여자는 저래야 한다는 우리의 상대적인 고정관념의 부분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같이 우리의 삶속에 무형적으로 각인되어 온 고정관념은 이분법적 색깔 코드를 사진으로 작업하고 있는 윤정미의 'The Pink & Blue Project'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그의 작품에서도 우리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란색이라는 놀라운 정형화를 부정할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된다.

본인의 캐릭터에 이 같은 성별에 따른 색이 입혀지면 이 둘은 면적의 대비를 통해 화면 안에 공평하게 분배된다. 때로는 난색 계열로 칠해진 넓은 면적의 배경의 힘으로 여자의 심리가 더 잘 반영되기도 하며, 한색 계열로 칠해진 배경색으로 인해 남자의 심리가 잘 표현되기도 한다. 또 캐릭터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의미를 전달 하고자 했던 작품에는 원색을 사용하여 강렬하게 주제를 전달시키고자 하였고, 형태보다는 전체적 내용의 흐름이나 스토리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에는 파스텔

15) 김진한 「색채의 원리」 시공사, 2002, p.101

톤(tone)의 색을 사용하였다. 흰색은 시선을 집중시키며 그 형태가 갖는 의미를 강하게 어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인 작품에서 인체에 쓰이는 파스텔 톤(tone)의 색감들은 현대인들의 개성 없이 비슷한 모습들을 은유한 것인데, 이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고 싶어 하는 심상을 반영한 색감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현대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비슷해져가고, 서로를 구분하기 힘들어 지기도 한다. 각각의 색이 뚜렷하지 않아 멀리서 바라보면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는 비슷한 색깔들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파스텔 톤(tone)의 색들은 모두 2가지 이상의 색들이 섞여져 만들어진 색으로서 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맥락과 같이할 수 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반영된 색이라 할 수 있다. 두 가지의 색이 만나서 만들어진 파스텔 톤(tone) 색감은 본인 작품에서 부드럽고 편안하여 인간의 화합을 희망하는 색으로서 쓰이고 있다.

모든 색들의 배열도 ‘색의 관계’ 안에서 읽혀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흰색은 주변에 어두운 검정색이 있음으로서 더욱 희게 보일 수 있으며, 흰색의 파랑도 파스텔 톤(tone)의 청색이 같이 만나져야 더 강하게 보여 질 수 있다. 이렇듯 강한 색과 약한 색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색은 도드라져 보이고 또 어떤 색은 숨겨진다. 본인은 색의 어우러짐과 대조됨을 통해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관계’를 전달해 보고자 하였다.

본인 작품은 매끈한 화면에 조율된 색채의 구성으로 붓질의 흔적도 바탕이 드러나는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고 화면을 선과 색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마요와 마토’라는 캐릭터의 단순화된 구성방식에서 보여지듯 감정의 절제 속에서도 색과 형의 변화와 다이내믹한 동작사이에서

발생하는 힘들의 관계로 본인의 색깔을 표현하고자 한다.

3) 선

기하학에서의 선(線)은 무수히 많은 연속된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예술에서의 선(線)은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하나의 움직이는 점들로 정의된다.¹⁶⁾ 선(線)이란 이와 같이 점에서 시작하여 움직여간 유형으로 보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위의 내용은 결국 선(線)이란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며, 점이 움직여 나간 흔적, 즉 점이 만들어낸 소산이다.”라고 한 칸딘스키의 견해로 요약할 수 있다.¹⁷⁾

조형 예술의 중요한 표현요소 중의 하나의 선은 전통 회화의 표현에서 형을 드러내는 주된 요소로 인식되어 왔지만, 추상 회화가 발전하면서 예술가들은 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즉 형상의 묘사를 벗어난 순수 의식을 표현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순수 행위를 준수하는 행동 회화에서는 선을 행위성에 의한 정신의 표출로까지 보였다. 이처럼 선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면서 화면에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시각적 역할과 작용을 하게 되었다.¹⁸⁾

본인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선을 통해 친숙하면서도 낯선 대상들의 색감과 움직임의 변화감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 캔버스 위에서 선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면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아이디어(idea)의 표상이 되어 진다. 한 화면 안에 둘 이상의 성질이 서로 엉키고 엮어져있는 모습들을 제시하며, 복잡하면서도 간결한 선으로 작품을 마무리 짓는 행위는 작업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6) 데이비드 라우어,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미진사, 1985, p.157

17) 칸딘스키, 차봉희 역 「점.선.면」 열화당, 1983, p.47

18) Herbert Read, 유일주 역 「예술의 의미」 서울:을주 문화사, 1979, p.51-52

앞에서 언급한 키스 해링 작품이 하나의 도상으로 양식화되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평면의 공간위에서의 선과 색감 때문이다. 작품의 상징적 이미지들은 2차원 평면위에서 더욱 강하게 주제를 전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해링의 작품에서 선은 대상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형식적으로 축약된 것으로, 화면의 한정된 공간 안에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선은 항상 연속적이며, 우연의 법칙을 따르고, 외관성이 되어 형상을 이루고 결국에는 상징이 된다. 무엇보다도 관람자는 작가가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짧은 순간의 응시만으로 충분히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본인 작품에서의 선은 배경으로부터 캐릭터의 형태를 떨어뜨려 모든 형태를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그의 선은 스프레이로 그리거나 단번에 그려진 선이지만 본인의 선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그림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선이다. 이 선은 일정한 두께의 완고한 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덧칠해지는 반복의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엄격히 그려진 선은 배경과 형태를 분리시켜 놓지만 캐릭터들의 몸의 형태는 끊어진 곳 없이 서로 연결시켜 준다. 화면을 이리저리 가로지르는 직선, 머리카락의 구불구불한 곡선들은 작품에 활기를 더해주고 패턴화된 양식으로서 리듬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본인 작품에서의 화면은 ‘마요와 마토’라는 캐릭터로 상징화되어 유기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동시에 매우 선명한 선과 색을 통해 2차원 평면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색과 형으로 환원된 평면적 구성방식에서 캐릭터는 작품 속 이야기의 주된 모티브가 되고 있으며, 그들이 있는 자리는 최소한의 공간을 구성하는 배경과 오직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캐릭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릭터는 일대일의 관계 혹은 다수의 남녀로 군상을 이루기도 하는데, 그들이 이루고 있는 선들은 복잡한 인간관계망을 시

각화 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작품의 마지막 단계로서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캐릭터의 두께감 있는 머리모양 역시 작품 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마요네즈가 튜브 바깥으로 짜여져 나올 때 그어지는 다섯 개의 선들은 별모양과 함께 ‘마요(Mayo)’의 심정을 대신해주는 선들로 사용된다. 또한 [작품4]와 [작품5]에서처럼 신체의 일정 부위에서 흘러나오는 욕망의 형상들도 선의 연장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사물의 형태는 작가의 개인적 표현태도에 따라 변형되는데 그 본질은 핵심에 접근할수록 단순해지는 특성이 있다. 본인은 이러한 특성과 회화의 본질인 2차원 평면성을 근거로 하는 비재현적인 조형 공간을 만들어 나갔다. 그것이 시각적으로 표현될 때 일루전의 제거, 명암법 탈피, 화면의 균질화 등의 표현방법을 통해 단순화되고 평면화된 형태와 색채로 구현되게 된다. 이렇게 원근법적인 시각을 버리고 선을 통해 형태를 단순화 시켜 화면의 평면화를 시도하였고, 캐릭터의 형태를 상징화시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3. 작품의 분석

[작품1]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의 연출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다. 본인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머리카락은 그 캐릭터의 심리상태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 사용된다.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얼굴표정에서는 숨기고 머리카락의 모양이나 흐름으로 감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이 작품에서 관람자는 파스텔 톤(tone)이 만들어진 평온함과 날고 있는 듯 보이는 캐릭터들의 흥겨운 자세로 인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캐릭터의 본 심경은 읽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카락이라는 장치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캐릭터(Mayo)의 머리카락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스트레스나 괴로움으로 진행되는 탈모현상으로도 보여 지며 그의 몸 어느 한구석이 떨어져나가고 있어 외로움이나 힘듦을 은유하고 있다. 걸모습으로는 읽을 수 없는 현대인의 개인적 어려움을 숨겨본 작품이다. 행복한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뒤의 캐릭터(Mato)와 더불어 즐거운 듯 날고 있는 마요(Mayo)의 안녕은 ‘이제 그만’이라는 의미의 ‘안녕’일 것이다.

[작품2]

본인이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관조적인 입장으로 그려본 작품이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캐릭터들의 뒤엉켜있는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자 했다. 몸의 형체가 서로 붙어있거나, 머리카락이 다른 이의 신체 부위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과 서로 엉켜있는 모습들은 복잡하게 얽힌 우리의 관계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미지이다. 작품에서의 공간은 무중력 상태로 설정하여

사람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무기력해진 현대인의 허망함과 공허함의 심상들이 반영된 것이다.

복잡한 인간들의 관계망 속에 캐릭터들의 자세를 들여다보면 웅크리고 있거나 고립된 자세들을 취하고 있으며, 손으로는 모두 ‘쓱(ssh!)’이라고 말하며 밖으로 밀어내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캐릭터들의 형태는 자신들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일조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점차 잃어가는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갈구하는 포즈이다. 본인은 이 작업에서 한눈에 우리의 복잡한 인간관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고립된 캐릭터들의 자세를 통해 감춰진 현대인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작품3]

‘내겐 너무 무거운 그대’ 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모든 상황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같은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캐릭터(Mayo)는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며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Mato)캐릭터는 무척 힘들어 얼굴이 불처럼 빨개진 모습으로 버티고 있다. 작품 속에서 남자의 존재는 여자에게 짐이 되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과 같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자 캐릭터가 힘들게 들어 올린 남자는 사실 자신보다 나약하고 가벼운 존재일 수 있음에도 그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장면을 통해 상황의 상대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4]

흥겹게 하늘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캐릭터들과 그들의 신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액체의 흐름은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방식을 보여준다. 본능을 따라 자유로이 낙하하는 캐릭터들은 저마다의 욕망에 심취해 있으며 그 형태의 리듬감으로 욕망과 욕구를 쏟아내는 모습이 즐겁게 표현되어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캐릭터의 신체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액체는 그 캐릭터의 욕망과 욕구와 같은 일탈의 표현이 시각화 된 것이다. 각각의 욕망들은 서로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2차원 평면의 공간 안에서 캐릭터들의 크기 조절로 인한 공간이 형성되어있으나, 그 표현 방식은 단색으로 되어있어 캐릭터의 형상이 더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작품5]

본인은 일상의 단편적인 모습 속에서 마치 우리가 ‘한판의 경기’를 치루고 있는 듯한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다. 이 경기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데, 이 경기의 규칙은 치열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있다. 그래서 현실의 모습을 운동경기인 씨름이나 레슬링으로 비유하여 ‘싸움의 기술’이라는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판의 게임에 임하듯 링 위에 오르는 것 같다. 그리고 링 밖에서는 살아남을 겨를이 없다.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싸움의 기술을 습득해가며 일상의 부분들을 살아가고 있으며, 승자가 되기 위한 싸움의 기술은 점차 진화해 간다. 기술의 발전은 곧 인간의 욕망을 증진시키지만 고독감과 외로움을 동반한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현대사회의 체제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해 나가기도 하는 것이다. [작품4] 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 캐릭터

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는 상대를 이기고픈 욕망의 표현이며, 작품을 남녀 관계로 바라볼 때에는 여자의 성적인 욕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작품6]

이 작품은 마티스의 '춤'이라는 작품을 인용한 것이다. 본인이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원작에서 원의 구도를 통해 잘 표현되었기에 인용하게 되었다. 캐릭터들이 원을 그리며 계속해서 춤을 이어 추는 동작과 손이 떨어질 듯 말 듯 붙어있는 모습은 인간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으며 벗어나고 싶어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티스가 이 작품을 통해 삶의 기쁨을 노래했듯, 본인도 인간이 관계를 맺으며 서로 어우러져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배경이 없이 '마요(Mayo)와 마토(Mato)'만으로 정서적인 유대를 가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한 유명화가의 작품을 인용하여 본인 작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고자했던 작업이다.

[작품7]

'대화가 필요해!' 라는 작품에서는 운전상황이라는 위험 상황 속에서 앞을 보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한 두 캐릭터를 보여준다. 캐릭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 혹은 '대화'를 시각화시킨 것이다. 상황의 급박함 속에서도 인간관계에 몰입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려진 운전상황을 떠나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 질 수 있는 단면을 은유한 것이기도 하다.

[작품8]

극장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공간에서 미묘하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해 본 것이다. 일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상상력을 덧붙여서 상상속의 캐릭터에 감정을 부여시켜 화면 속에 되살려냈다. 이 캐릭터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방식으로 교류하며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때로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해주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조율해 주기도 한다.

작품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그리는 캐릭터가 상상의 공간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현실속의 우리 모습임을 말하고자 함이다. 극장이라고 추정되는 공간은 정면을 바라보고 앉도록 정돈되어있는 의자들로 통일되어 있으며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일탈적인 상상을 캐릭터의 심상으로 표출해 본다.

[작품9]

본인은 나아가면서 항상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짐은 본인이 이루고자하는 꿈과 같은 것이기도 하며,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동반해야할 많은 시련과 고난으로서의 짐이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작품1]에서도 보여지 듯 마요(Mayo)를 업고 걸어가는 마토(Mato)의 고통과 시련의 흔적이다. 이로서 작품에 드러난 그녀의 힘든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작품10]

모든 감정을 끌고루 지니고 있는 무지개 여신이 사람들의 추앙을 받

고 있는 모습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무지개색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스에나가 타미오의 저서 「색채기억」 중 색의 심리에 대하여 기술한 글에서 무지개색의 심리에 대한 의미를 반영하여 표현되었다.¹⁹⁾

무지개색의 심리

빨강에서 보라까지의 색이 사람의 희노애락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들이 이어진 무지개는 모든 감정의 발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컬러 히스토리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강한 억압 상태에서 해방되어 겨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한꺼번에 컬러풀한 색이 나열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헤어짐이나 새로운 시작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들었을 때 사람은 다양한 사건으로 채워진 지금까지의 나날들을 생각하며 무지개 색 앨범을 들춘다.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멋진 말이다. 많은 색상이 한꺼번에 표현되는 무지개 색에는 이 만감이라는 말이 딱 맞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색의 나열이 마치 무지개처럼 비취졌을 거다. 분명 거기에는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색을 기억해두고 싶다는 만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이지 않게 되기 전에 마음에 담아두고 싶다는 그녀의 절실한 생각이.

한 가지 색으로 통용될 수 없는 복합적 감성의 덩어리인 여신은 한번 째 영웅이나 스타가 되보고 싶다는 현대인의 욕망의 모습을 상징화 시킨 것이다. 그리고 배경에 일정한 무늬를 패턴화 시켜 배치시켰는데, 이것은 무지개를 생성하기 위한 빗물을 간략화 시킨 것이기도 하며 욕망의 꿈을 이룬 ‘마요(Mayo)’를 축복해 주는 빛이기도 하다. 본인의 모든 작품은 단순화된 형태로 이미지에 상징적 의미를 두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고, 그것이 본인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일 수 있다.

19) 스에나가 타미오, 강죽형 역 「색채기억」, 도서출판국제, 2003, p177

[작품11]

두 캐릭터는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다른 것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등이 붙어있어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여자에게서 남자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여자의 '영향력'과 같은 것이기도 하며, 둘 사이의 심리적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다.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들을 이 같은 장면으로 연출해 보았다.

[작품12]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해 '사탕발림' 말과 같이 서로에게 본심을 숨긴 가식적인 말들을 의도적으로 내뱉게 된다. 언어를 상징화 시킨 사탕과 과일들은 본인 작품 속에서 쏟아지거나 흡수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단소리만 내뱉고 받아들이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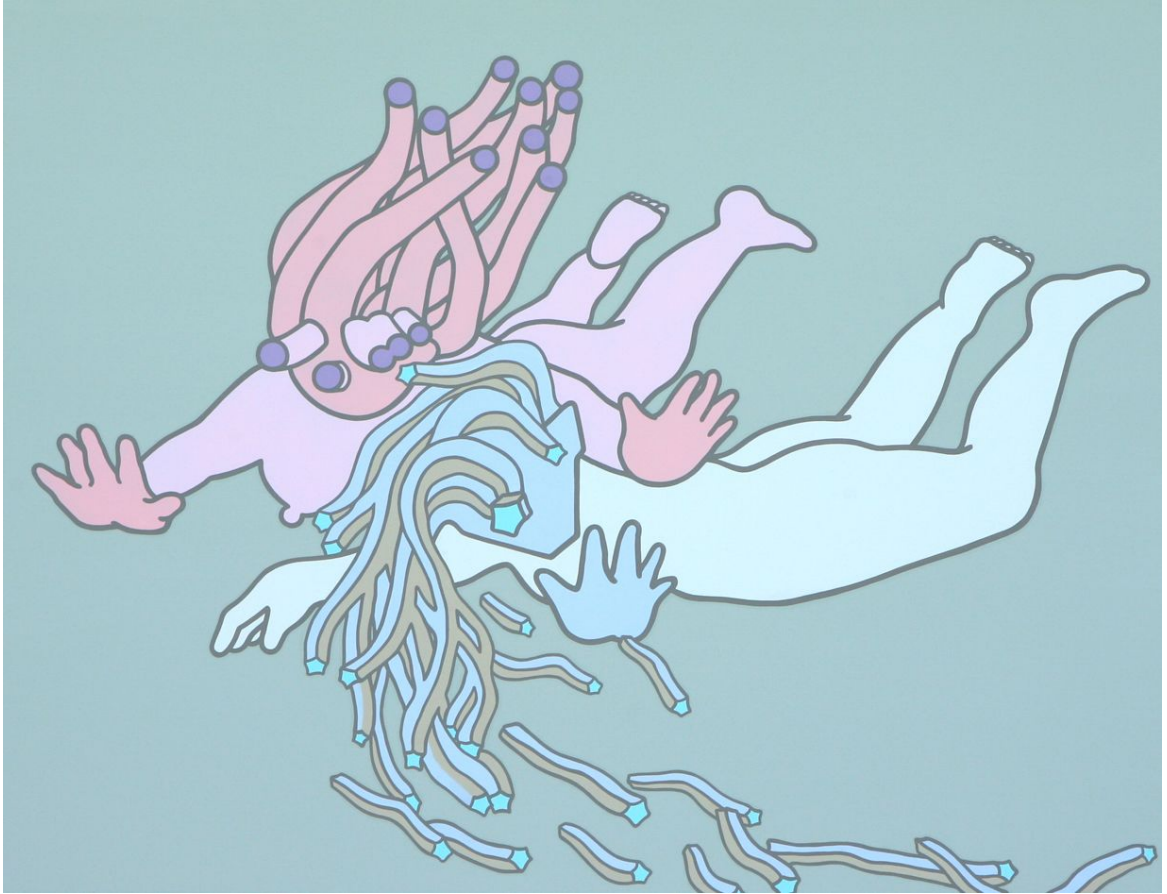
[작품13]

그림 속에는 위험표시구역을 알리는 기호가 철봉과 같은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 이 기호는 현실에서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약속된 표시이다. 그림 속 캐릭터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실제 현실의 공간임을 보여주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표지판, 교통콘, 차양, 파라솔 등은 도시에서 원색의 강한 색채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들이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파스텔 톤(tone) 인간의 벗은 몸과는 대비되는 이 인공물은 사람을 경계시키며 내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그리고 이 작품은 91×72.7cm 크기의 캔버스 두개를 붙여서

그런 작품이다. 이는 실제 전시 공간 안에서 일반적으로 놓이게 되는 작품의 위치와는 다르게 설치할 수 있는데, 두 점의 그림을 벽의 모서리를 따라 꺾이도록 설치한다. 위험지역을 알리며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기호위에서 거꾸로 매달려 장난을 치고 있는 캐릭터들의 행동은 다른 작품들과 똑같이 설치되기마저 거부한다.

[작품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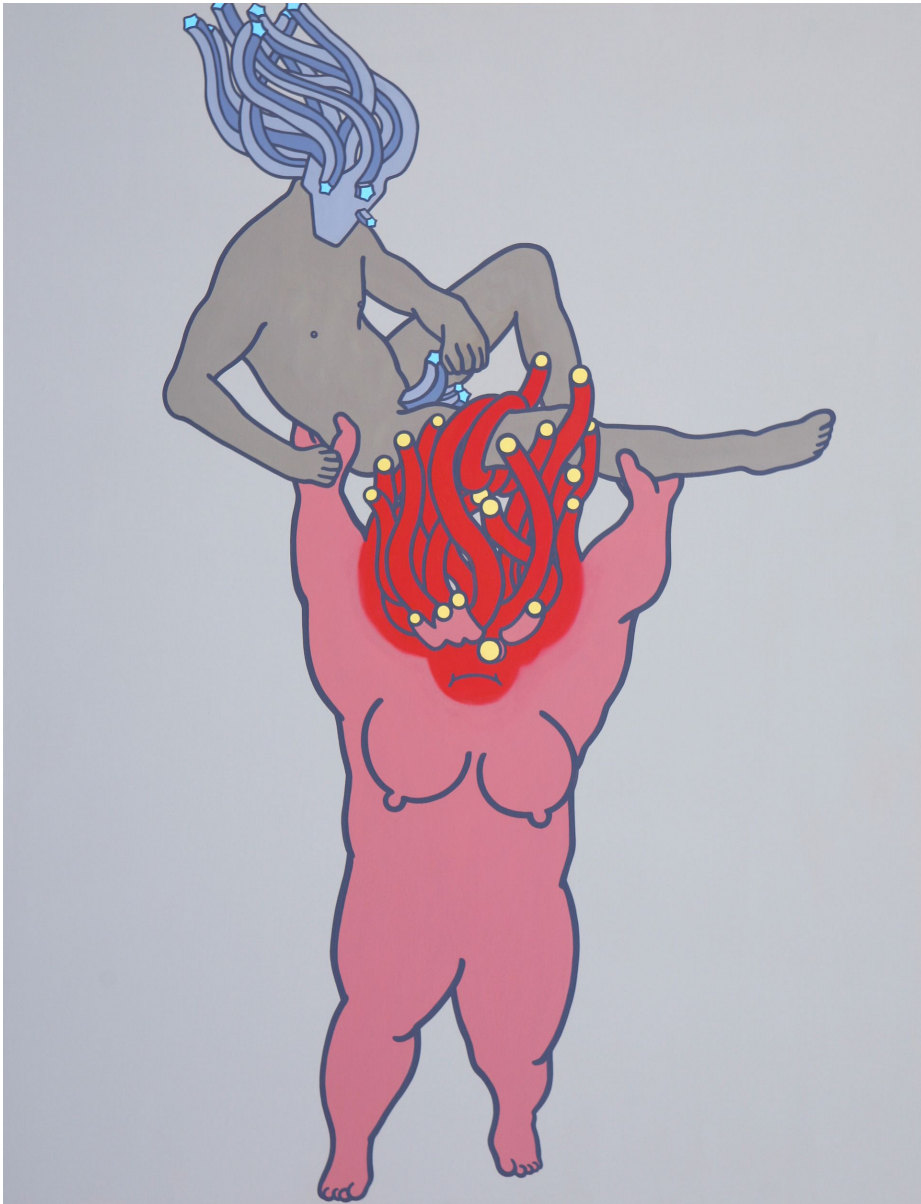
화면의 밖으로 캐릭터의 얼굴을 확장시켰다. 배경은 거의 제거시키고 빨강과 파랑의 강렬한 색채대비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미지의 확대는 캔버스 바깥으로도 공간을 연상시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서로를 유혹하고 상대에게 빠져드는 ‘관계’ 속에서도 캐릭터는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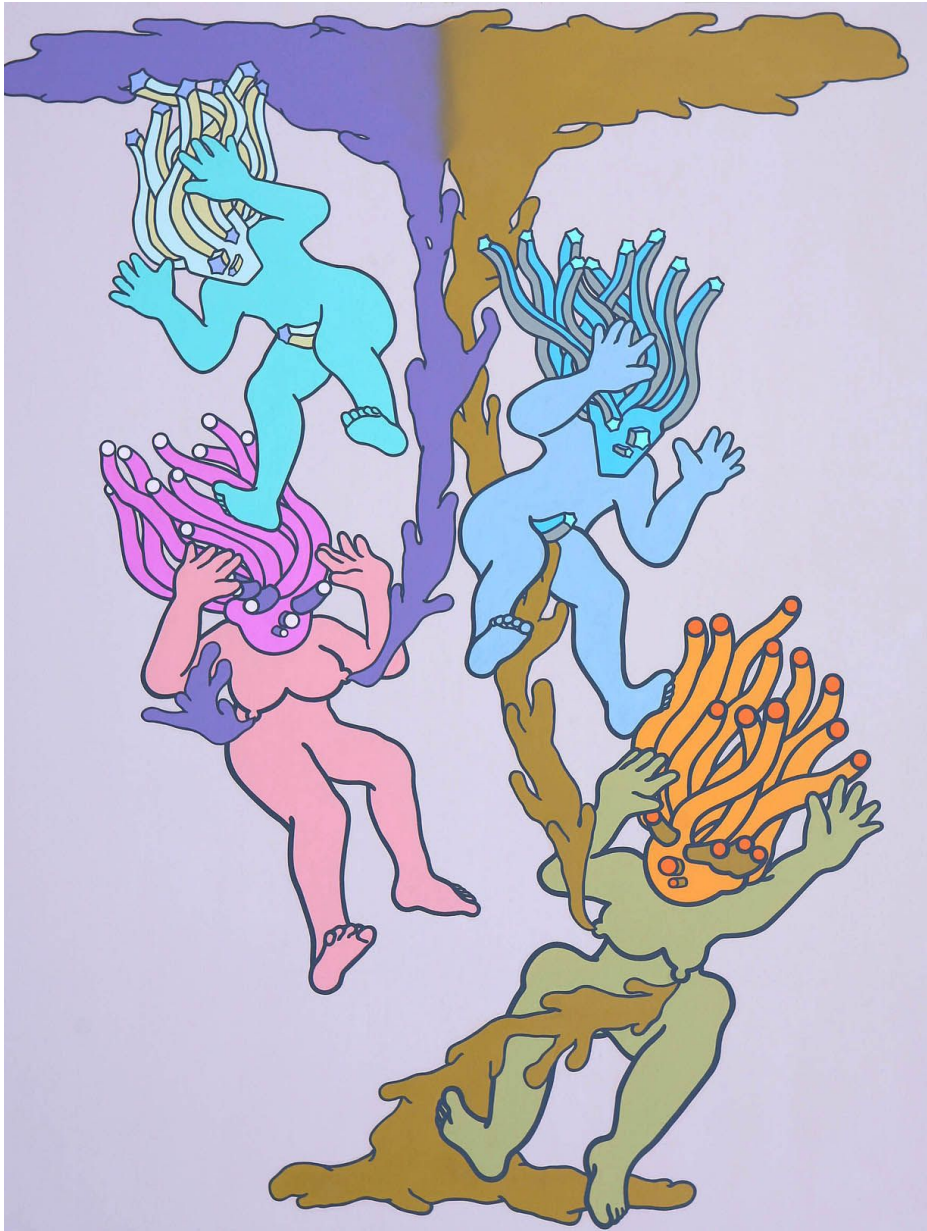
[작품1] Camouflage Acrylic, Oil on canvas 92×117cm 2008



[작품2] ssh~! Acrylic, Oil on canvas 130.3×324cm 2008



[작품3] You, who is too heavy for me
Acrylic, Oil on canvas 145.5×112cm 2008



[작품4] Slide of greed Acrylic, Oil on canvas 145.5×112cm 2008



[작품5] Art of fighting Acrylic, Oil on canvas 112×145.5cm 2008



[작품6] Dance dance Acrylic, Oil on canvas 162×260.6cm 2008



[작품7] “Conversation needed!” Acrylic, Oil on canvas 72.7×91cm, 2008



[작품8] Exit to happiness Acrylic, Oil on canvas 72.7×91cm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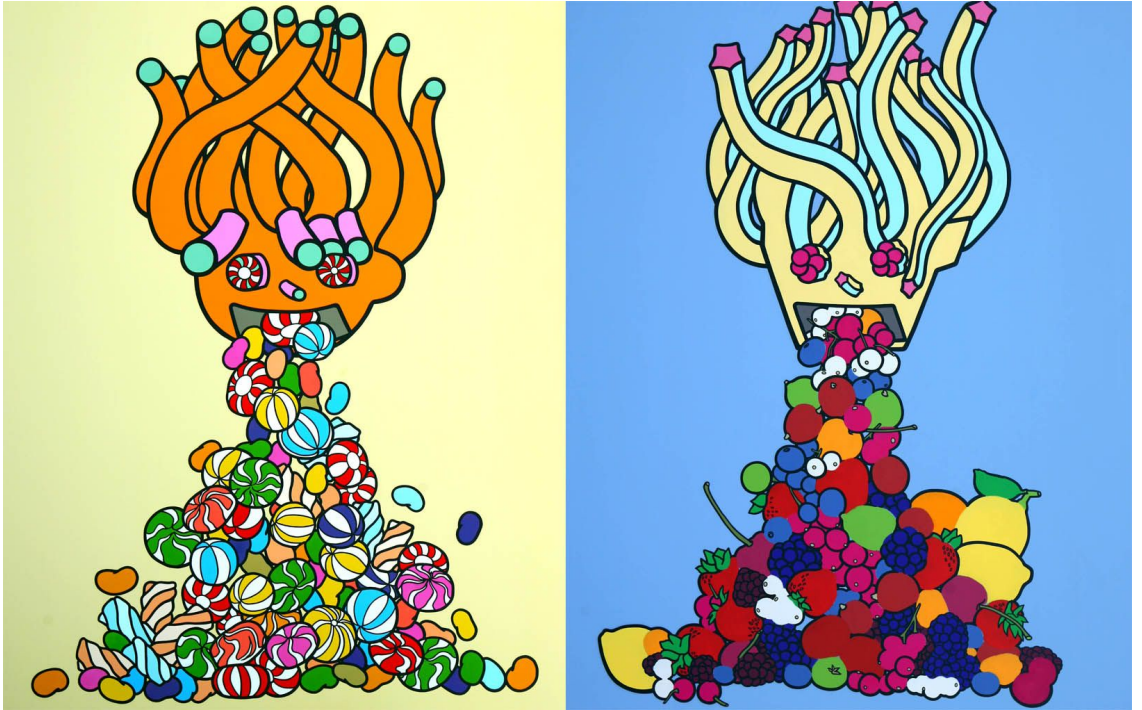
[작품9] Porter Acrylic & Oil on canvas 91×72.7cm 2008



[작품10] Rainbow heroine Acrylic, Oil on canvas 80.3×130.3cm 2008



[작품11] We are the one Acrylic, Oil on canvas 100×100cm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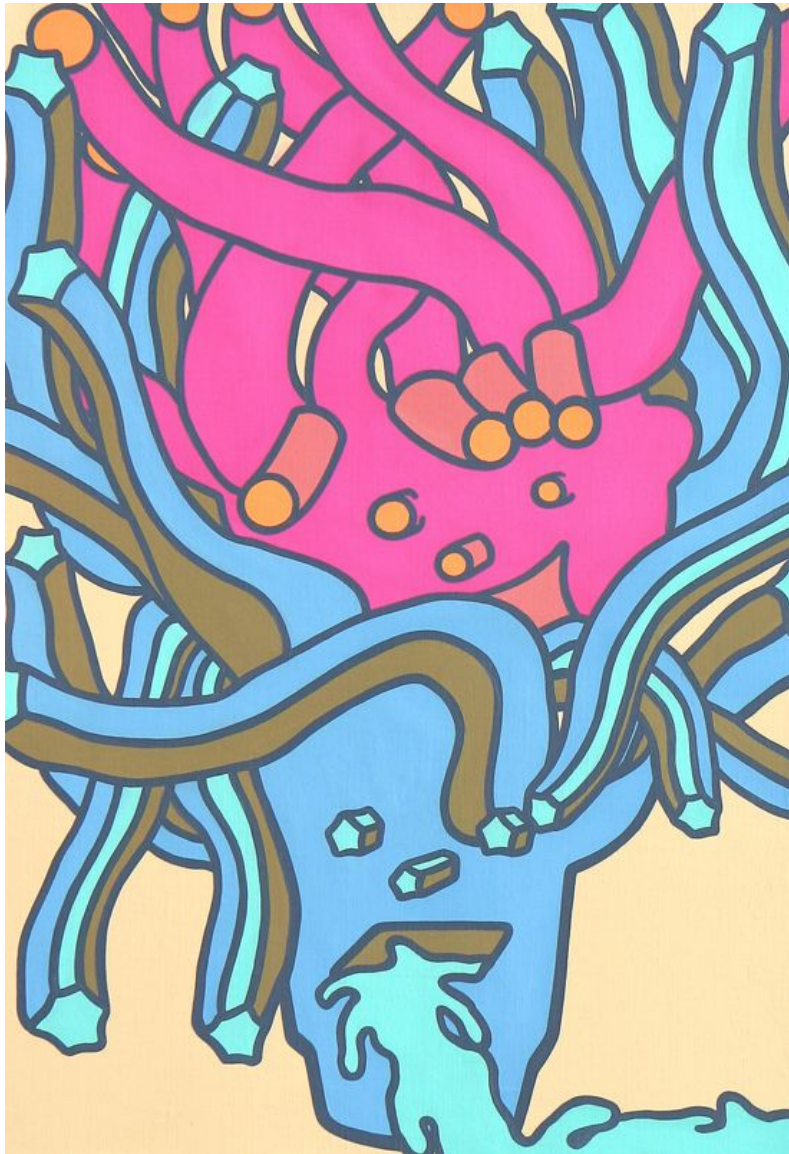
[작품12] Sweet & Sour whisper Acrylic, Oil on canvas 162×260.6cm 2008



[작품13] On the contrary, is contrary
Acrylic, Oil on canvas 91×145.4cm 2008



2009. 3.4-3.10 Mato & Mayo - 마토와 마요가 만나는 '사이' 혹은 '관계'
(galleryis, 서울)



[작품14] Temptation Acrylic & Oil on canvas 72.7×60.6cm 2008

Ⅲ. 결 론

2007-2009년에 제작한 본인의 작품들은 현실공간에서 체험하는 몽상적인 이미지의 세계를 미적 대상으로 가시화 하여 일상에서 경험한 미각체험과 시각적 이미지에 그 바탕을 두었다.

몽상적 일탈로서의 인간이라는 내용의 작업과정을 통해 추구한 것은 형식을 중요시하거나 형태적인 면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본인의 잠재된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감정과 우리의 일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구와 욕망들의 이미지를 조형적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인들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키스 해링의 작품을 통해 본인 작품을 비교와 분석하고, 이론적 배경 및 제작의도를 전개하였다. 결국 키스 해링의 욕망, 성욕 등과 같은 사건들의 소재는, 본인이 주제를 다루는 유사한 방법적 측면을 배웠고, 주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대인들을 바라본 본인의 시각은, 생활 속 모든 장면 속에서 느껴지는 ‘성공의 욕망’이나 ‘성적 욕망’들이 또렷이 느껴지며 이것은 본인에게만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닌 만인의 동의를 얻기에 충분 했다.

욕망과 욕구는 살아가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야망과 꿈’과도 연관된 본능적 욕구의 표출은 삶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본능적 욕구들을 캔버스 위에 재현해 봄으로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쟁상황이나 욕구의 표현들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여 간접적으로 주제를 전하고자 했다. 그것은 일상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비 일상의 세계를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도달하고자하는 세계는 비록 출발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 일지라도 일상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일상의 체험을 일탈의 세계로 전이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넘어 몽환의 세계로 넘김으로써

역설적으로 기억과 현실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회화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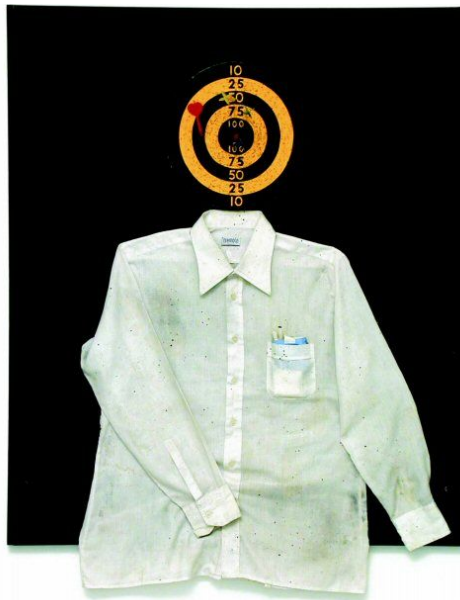
앞으로도 작업을 전개해 나아가는데 있어 현실 체험과 또 다른 표현 형식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을 통해 현대사회와 인간, 욕망, 일탈 등 작품 속에 관련된 이미지들의 연구가 현대사회와 현대성을 탐구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속에서 실재가 사라진 이미지를 어떻게 본인의 이미지들로 끄집어내어 제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대 미술은 패러다임과 미술개념 및 매체의 확장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이고, 정치적 문맥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그 범위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일상의 경험을 뛰어 넘는 특별한 것으로서 정신적인 휴식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 작품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 느껴보는 일탈의 욕구,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조건으로부터 느끼는 현대인의 욕망이다. 이제는 더욱 자아 속에서 꿈틀거리고 자극시키는 그 어떤 것들을 캔버스로 끌어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려한다. 이것이 일상을 그리면서도 일상담론에 안주하지 않는 일탈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이유이다.

참 고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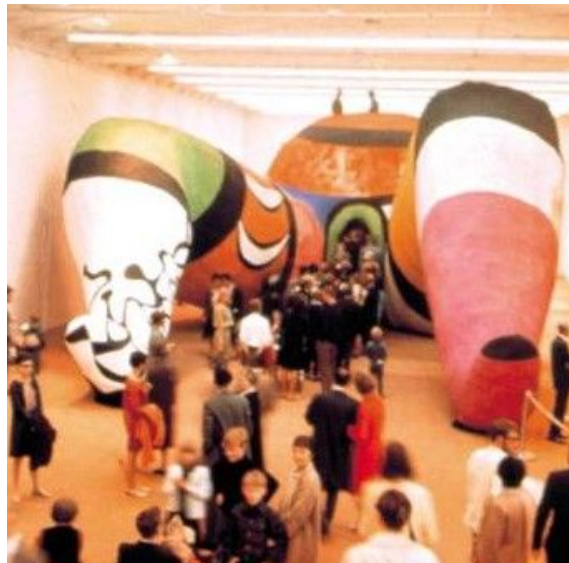
[도판1] 슈팅 페인팅(shooting painting), 캔버스위에 오브제, 물감과 총,
194×130cm, 1961



[도판2] Portrait of my Lovers, 페인트 풀과 오브제 108.5×94cm, 1961



[도판3] 물구나무선 검은 나나, 천과 양털 페인트와 철망,
150×105×108cm, 1965



[도판4] 그녀(Hon), 혼합 매체, 2800×900×600cm,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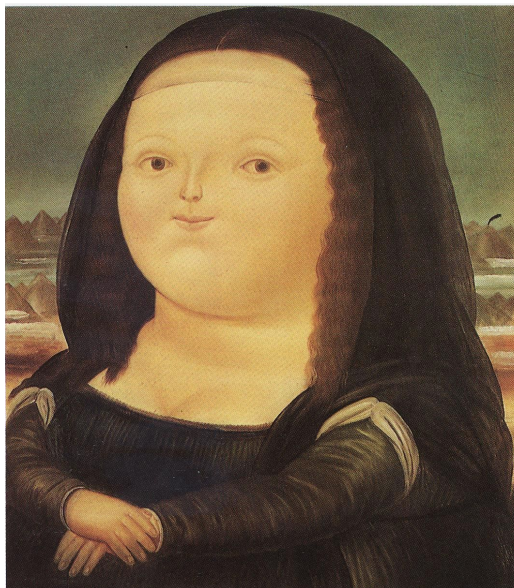
[도판5] 가족의 초상, 캔버스에 유화, 135×160cm, 1983



[도판6] 애인들, 캔버스에 유화, 167×128cm, 1984



[도판7] 수녀원장, 캔버스에 유화, 195×130cm,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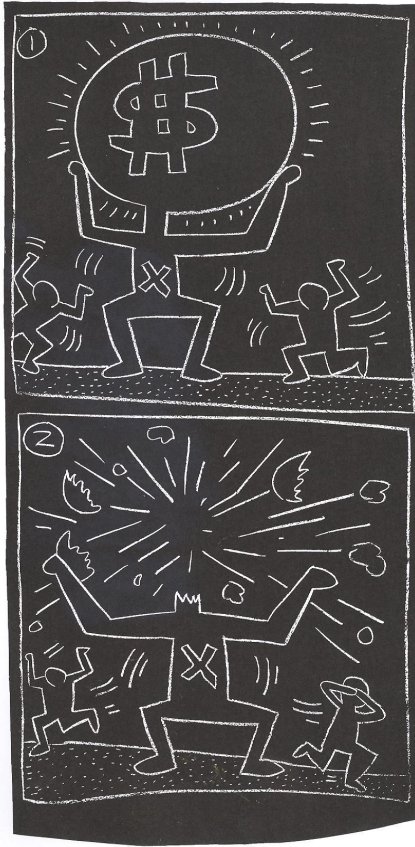
[도판8] 모나리자, 캔버스에 유화, 183×166cm,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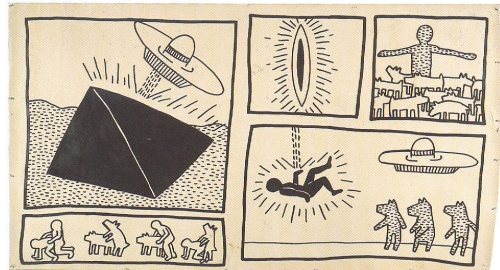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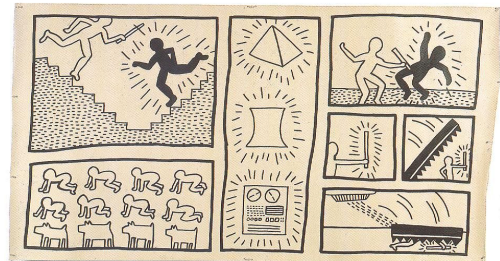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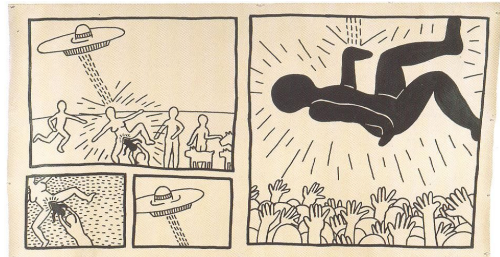
[도판9] 무제Untitled, 파운드 캔버스에 마커 잉크와 페인트, 244×210cm, 1982



[도판10] 무제Untitled, 비닐 방수포에 비닐 잉크, 183×183cm, 1982



[도판11] 무제Untitled, 종이에
초크, 203×107cm, 1984,
개인소장



[도판12] 위에서 아래로
포스터 마분지에 먹물, 122×233cm, 1980
포스터 마분지에 먹물, 122×230cm, 1980
포스터 마분지에 먹물, 122×228cm, 1980



[도판13] 무제Untitled, 캔버스에 아크릴, 122×122cm, 1985, 개인소장



[도판14] 무제Untitled, 캔버스에 아크릴, 239×239cm, 1984, 뉴욕

참 고 문 헌

- 황농문 「몰입-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랜덤하우스, 2007
- 임춘식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서울:한남대학교 출판부, 1990
- 월간미술 위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2002
- Gerard Durozoi, 이정실 역 「Botero」 HAZAN, 1994
- 김현화 「20세기 미술사-추상 미술의 창조와 발전」 한길아트, 1998
- 알렉산드라 콜로사, 김율 역 「Keith Haring」마로니에북스/Taschen, 2006
- 미셸 파스투로 「색의비밀」 미술과 문화, 2003
- 김진한 「색채의 원리」 시공사, 2002
- 데이비드 라우어,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미진사, 1985
- 칸딘스키, 차봉희 역 「점.선.면」 열화당, 1983
- Herbert Read, 유일주 역 「예술의 의미」 서울;을주 문화사, 1979
- 스에나가 타미오 강죽형 역 「색채기억」 도서출판국제, 2003
- 이상은 「니키 드 생팔의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요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고충환 「캐릭터를 통해본 동시대 미술」 김달진 미술 연구소, 2006
www.daljin.com
- 김옥렬 「Mato & Mayo - 마토와 마요가 만나는 '사이' 혹은 '관계」,
개인전 비평, 2009

ABSTRACT

The research of modern people desire and deviant expression

- centering on the author's work -

Choi, na ri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demonstrates both sides of context and formative elements based on solo-exhibition on March in 2009 which is working the theme of 'Conversation needed!' from 2007 until 2009.

I had expressed this 'Conversation needed!' by exposed human desi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This symbolizes variety of modern people by combining with experience of taste in daily life and visual images. Association images of mayonnaise and tomato ketchup tubes has progressed story as two symbolic codes of men and women, which show that men and women directly involved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inner life of modern people, which make desire and daily life to be a metaphor. Sexual curiosity, upward mobility, material, and desire represent vivid figure and color in images.

As well, I represent themselves social complain, sexual curiosity, and human inner psychology in this context, this is explained in the relationship of 'people and people' as well as 'human and society'. I would like to find humans relationship and research emotions men and women as well as family and society.

In this sense, I deal with the issues of this work not much romantic, manage modern people more frankly and vary visualize. In addition, I continually want to communicate to public with characters which are found in daily life and my experiences.

My questions begin to personal figure and society how appears in today. I continue to explain further semantic analysis and formative analysis through the modern people and Keith Haring's work by compare with my works.